

# 2015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 및 전망

이종규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jklee@kdi.re.kr

## 1. 머리말

최근 북한 전문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슈 중 하나는 2015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흐름일 것이다. 왜냐하면 2014년 북중무역 자체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가운데(대중 원유수입 존재 여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던 북한 대외무역 구조와 다른 모습을 보였던 부문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지속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북한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2015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에 있어 중요하게 짚어 봐야 할 사항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2014년 북중무역 통계 자체에 관한 것이다. 2014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IMF, UN, KOTRA, KITA(중국해관통계)가 약 28.4~28.7억달러로 대부분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대중 수입의 경우 KOTRA만 다른 통계치를 나타냈다. IMF, UN, KITA가 35.2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KOTRA만이 40.2억달러로 다른 세 출처에 비해 약 5.0억달러 가량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세 기관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14년 북중무역액은 약 63.6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약 2.8% 줄어든 것이 된다. 반대로 KOTRA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68.6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4.9% 증가하게 됨으로써 역대 최대의 북중무역을 기록한 결과가 나온다.<sup>1)</sup> 그렇다면 KOTRA 통계의 대중 수입에서는 왜 5.0억달러를 더 기록한 것으로 나오는 것일까? 자세한 이유는 KOTRA의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이 발간되면 알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난해 북한 대외무역, 전년대비 3.7% 증가한 76억달러」, 보도자료, 2015. 6. 5.

수 있겠으나, 아마도 HS27 수입액(광물성 연료, 광물유)이 다른 세 출처와 다르게 입력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sup>2)</sup> 어쨌든 2014년 북중무역 총액이 출처마다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15년 상반기 북중무역이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이슈가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의 대중 수입은 각 출처별 통계 불일치로 인해 확정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2014년 대중 수출은 전체적으로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던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이 급감한 것에 기인한다. 무연탄과 철광석은 전년에 비해 각각 17.7%, 25.7% 감소했다. 특히 단가가 하락하는 ‘가격효과’<sup>3)</sup> 뿐 아니라 수요가 줄어드는 ‘물량효과’<sup>4)</sup>까지 동시에 발생했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최초로 수출가격, 수출총액, 수출물량이 동시에 떨어진 사례이다.<sup>5)</sup> 만약 이러한 흐름이 2014년에 이어 2015년 상반기에도 지속된다면 북한당국으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소세가 2015년 상반기에도 지속되는 흐름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북한 지하자원 수출 감소로 인해 2014년 북한의 외화수입원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소득수지, 서비스수지 등 각 측면에서 대체 채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될 수 있는 채널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북중무역 증대 및 경제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대러시아 수출 확대 여부,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국으로의 수출 확대 등도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역 외에 소득수지 측면에서는 해외 노동력 송출을 통해 외화확보는 얼마나 더 늘릴 수 있을지, 서비스수지 측면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얼마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등이 중요한 이슈로 꼽힐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2015년 상반기 북중무역은 향후 북한 전체 무역의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시험대(test-bed)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북중무역은 2014년에 이어 계속 감소할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추세가 2014년에만 일시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2015년 상반기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변화를 평가해 보고, 하반기 대외무역 방향도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진욱(2015)을 참고하라.  
 3) 톤당 가격(달러): 2013년 83.3달러 → 2014년 73.4달러  
 4) 수출량(톤): 2013년(1,649만톤) → 2014년(1,543만톤)  
 5) 이종규,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감소: 원인과 의미」, KDI Focus 제57호, 2015.

## II. 2015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1~5월)

2015년 상반기 북중무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12.5%). 작년 같은 기간에 약 4.8%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북중무역은 더욱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유 수입 통계가 없었던 것으로 잡힌 북한의 대중 수입(-14.3%)에서뿐만 아니라 수출(-10.3%)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또한 이 기간에 원유 수입이 이루어졌다고 가정<sup>6)</sup>한다 하더라도 전체 무역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약 3.8% 감소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즉, 통계에 잡히지 않은 원유 수입을 고려해도 2015년 상반기 북중무역은 전반적으로 감속하는 추세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수출에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 무역을 통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에 차질이 생긴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화확보 측면에서 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성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품목별 수출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지하자원 수출이 부진을 면하지 못함으로써 전체 수출 감소를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탄의 경우 2015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1.3% 감소(석탄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연탄은 약 1.6% 감소)했으며, 철광석은 약 70.3% 감소하면서 주요 수출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물론 티셔츠, 기능성 의류 등 의류 관련 수출이 급증하면서 이 감소분을 일부 상쇄하기도 했으나, 그동안 무연탄과 철광석이 전체 수출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출 측면에서의 부진은 눈여겨볼 만하다.

〈표 1〉 2015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무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수출	수입	합계	무역 적자
2014년 전체 (1~12월)	2,842 (-2.4)	3,523 (-3.0)	6,364 (-2.8)	681
2014년 상반기 (1~5월)	1,064 (-4.8)	1,271 (-4.8)	2,335 (-4.8)	207
2015년 상반기 (1~5월)	954 (-10.3)	1,090 (-14.3)	2,044 (-12.5)	136

주: (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5. 7. 6).

6) 최근 북한의 원유 수입은 통상 연간 5억달러 내외였다. 매우 단순한 가정이지만, 이를 월평균으로 계산한다면 북한의 1~5월간 원유 수입은 약 2.1억달러가량 이루어졌어야 했다.

〈표 2〉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 위	HS 코드	품목명	2014년(1~5월)		2015년(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2701	석탄	469	-23.9	463	-1.3
2	6203	남성 재킷	76	44.8	63	-18.1
3	6204	여성 재킷	43	48.4	38	-12.1
4	6109	티셔츠	19	44.1	38	92.9
5	6211	기능성 의류	20	6.7	35	68.7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 총계			1,064	-4.8	954	-10.3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5. 7. 6).

북한 무연탄(HS270111)의 경우 2015년 상반기에 수출이 약 1.6% 감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작년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무연탄 수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던 2013년(상반기)과 비교하면 약 24.6%나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7)</sup> 즉, 무연탄 수출이 많이 감소했던 2014년과 비교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무연탄 수출로 외화를 많이 확보하던 2013년과 비교한다면 상당 폭의 수출 감소가 있었던 것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 상반기 들어 수출물량이 많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수출량으로 봤을 때 2013년에는 약 670만톤, 2014년에는 2013년보다 더 줄어든 604만톤이었던 데 비해 2015년에는 약 750만톤을 수출했다. 이는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이 동시에 떨어졌던 2014년과 달리 수출물량이 2015년에는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단가 하락 속에서 수출량을 힘겹게 늘려 왔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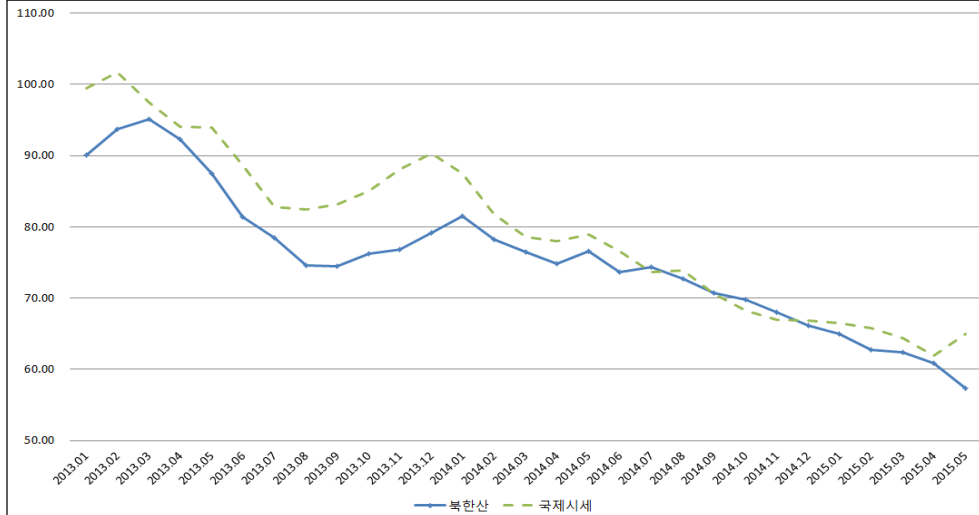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과거 무연탄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광동성과 광서장족자치구 등에서 올해 상반기 들어 북한산 무연탄 수입이 상당량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sup>8)</sup> 다시 말하면 기존에 베트남산 무연탄을 수입하던 지역으로까지 북한이 가격을 낮추어 가며 무연탄을 팔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산 무연탄 가격은 국제시세보다도 훨씬 더 가파른 하락폭을 보였으며, 5월의 경우에는 국제시세와 반대로 북한산만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7) 무연탄 수출액(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013년 상반기 6.1억달러(1.1%), 2014년 상반기 4.7억달러(-23.7%), 2015년 상반기 4.6억달러(-1.6%)

8) 통상 베트남산 무연탄은 남부의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해남성, 호남성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중국의 주요 수요처도 이 지역의 발전소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베트남산 무연탄 가격 상승 등과 맞물리면서 베트남산 무연탄 수출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이 지역에 저렴한 가격에 무연탄을 팔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1] 월별 무연탄 단가 비교(2013년 1월~2015년 5월)

(단위: 달러/톤)



주: 북한산은 중국에 수입되는 북한산 무연탄 단가(달러/톤); 국제시세는 Index Mundi(달러/톤) 사용.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5. 7. 6); Index Mundi(www.indexmundi.com, 검색일: 2015. 7. 6).

철광석의 경우 북한은 2013년 상반기(1~5월) 중국에 약 96만톤을 수출함으로써 총 9,606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의 수입을, 2014년 같은 기간에는 약 111만톤을 수출함으로써 총 1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의 수입을 거둔 바 있다. 이렇게 북한 수출에 효과 노릇(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에서 항상 2위를 차지)을 하던 철광석이 2015년 같은 기간에는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중국에 불과 60만톤가량의 철광석을 수출했고, 수출단가가 지 하락함으로써 금액 면에서도 2,296만달러(전년 동기 대비 70.3% 감소)를 버는 데 그친 것이다. 예년과 비교하여 약 8,000만달러가량의 수출이 감소한 셈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상반기 북한 주요 수출품목 리스트에 철광석(전체 수출품목에서 6위를 차지)은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철광석 수출 감소는 철강산업 부진 등 중국 내 수요 감소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 측면의 문제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일례로 북한 최대 광산인 무산광산<sup>9)</sup>에서 올해 초 가동중단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로 인해 노동자 1만명이 감원되었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월급이 더 적게 지급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sup>10)</sup> 작년 봄 가뭄으로 인한 전력 생산 차질이 철광석 생산 부진으로 연결된 것이다.

9) 무산광산은 매장량이 약 30억톤, 생산능력이 650만톤, 노동자 수는 약 23,0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10) 「Daily NK」, 「무산광산 가동중단으로 노동자 1만명 이상 감원」, 2015. 1. 19.

한편, 대중 수입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여전히 원유 수입액이 통계상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다.<sup>11)</sup> 하지만 2015년 상반기 통계는 2014년 상반기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2014년 상반기의 수입 감소는 원유 수입이 존재했던 2013년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2015년 상반기의 수입 감소는 2014년 상반기와 동일하게 원유 수입에 대한 통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즉,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원유 수입이 있었다고 가정한 후 예년의 액수만큼 더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아예 수입이 없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증감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기간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건 2014년 상반기에 비해 2015년 상반기 수입액이 더욱 줄어들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약 14.3% 감소).

원유를 제외하고 2015년 상반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합성 필라멘트 사 직물이다. 작년 같은 기간 동안 수입액보다 두 자릿수 이상 감소(-25.3%)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중 수입품목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그 외 석유제품, 대두유, 전화기 등 상위권의 수입품목이 모두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유독 화물자동차만 수입이 늘어났는데, 아마도 북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건설 및 토목 사업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표 3> 북한의 주요 대중 수입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 위	HS 코드	품목명	2014년(1~5월)		2015년(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5407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68	30.6	51	-25.3
2	8704	화물자동차	34	-48.3	49	43.3
3	2710	석유제품	62	34.3	37	-39.6
4	1507	대두유	42	40.9	37	-11.4
5	8517	전화기	35	18.0	30	-14.9
북한의 전체 대중수입 총계			1,271	-4.8	1,090	-14.3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5. 7. 6).

11) 여러 국내 연구기관이 분석했던 것처럼 북한의 원유 수입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원유 수입이 없었다면 북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컸을 수 있으며, 물가와 환율이 그렇게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4년 북한의 물가와 환율은 화폐개혁(2009년 12월) 이후 가장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표 4〉 북한의 최근 대러 무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합 계	무역 적자
2012년	10.9 (-24.9)	58.0 (-41.5)	68.9 (-39.4)	47.1
2013년	9.3 (-14.9)	103.4 (78.4)	112.7 (63.7)	94.2
2014년	9.8 (6.1)	80.6 (-22.1)	90.4 (-19.8)	70.8
2015년 1분기	1.1	35.3	36.4	34.1

주: 1) (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 한국무역협회는 월별 러시아 무역통계를 2015년부터 제공하여 2015년 1분기 북러무역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산출할 수 없음.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5. 7. 6).

북중무역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기는 하나, 러시아는 2013년(약 1억 1,270만달러)과 2014년(약 9,040만달러) 연속으로 북한의 2번째 교역국 위치를 유지했다. 2014년 북한은 러시아와 본격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무역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경기침체, 상호 보완적이지 못했던 무역 및 산업 구조 등이 영향을 미쳐 2013년에 비해 무역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5년 1분기 수치를 토대로 추세를 예상하면 올해 무역이 작년보다는 약간 증가함으로써 양국 무역액이 1억달러를 상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알렉산드로 갈루쉬카 극동부 장관은 올해 초 “2015년은 과거 양국 간에 도출한 합의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한 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양국의 무역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4년 북한은 러시아에 의류제품(HS6023), 플루트, 트럼펫 등 목관악기(HS9205), 굽힘기, 접음기, 프레스 등 단순 기계(HS8462)를 주로 수출했으며, 2015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이 세 품목은 전체 수출의 약 60%를 차지했으며, 2015년 1분기에는 목관악기가 전체 수출의 약 56%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sup>12)</sup>

다음으로 수입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석유제품(HS2710), 구급차, 소방차, 기중기 등 특수차량(HS8705), 밀과 메슬린 등 곡물(HS1001)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들어 왔으나, 2015년 1분기에는 유연탄 수입이 전체 수입의 79%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러시아산 유연탄의 나진항 반출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sup>13)</sup>

12) 2015년 1분기에는 플라스틱 제품, 단순기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3) 『파이낸셜 뉴스』,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유연탄 14만 2차 시범 운송」, 2015. 4. 15.

### Ⅲ. 2015년 상반기 남북교역 동향(1~5월)

남북교역은 2015년에도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전체 교역의 99%). 특히 2013년 잠정 폐쇄되었던 개성공단이 2014년에 정상화되면서 역대 최대 남북교역액을 달성했는데, 2015년 상반기의 월평균 교역액(약 2.2억달러)은 2014년 월평균(약 1.9억달러)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은 올해도 최대 교역규모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반출(대북 수출)액은 5.1억달러, 반입(대북 수입)액은 5.9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2014년 1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노동규정을 개정한 이래 남측 관리위원회가 맡았던 근로자의 공급 및 관리, 최저임금 결정 등을 북측 총국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월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한국정부는 “월 최저임금을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해 높일 수 없다”는 현행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근거로 북한의 일방적 임금인상을 수용할 수 없으며, 만약 임금인상이 정말 필요하다면 남북공동위원회를 열고 해당 노동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개성공단 임금인상 사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표 5〉 2015년 개성공단 교역 추이(1~5월)

(단위: 천달러)

연 월	개성공단 반입	개성공단 반출	합 계
2012년 월평균	89,426	74,007	163,433
2013년 월평균	51,221	43,127	94,348
2014년 월평균	99,361	93,674	193,034
2015년 월평균(1~5월)	117,160	101,519	218,678
2015년 1월	117,966	114,333	232,298
2월	104,582	92,463	197,045
3월	134,347	105,764	240,111
4월	113,812	97,615	211,427
5월	115,091	97,419	212,510
2015년 소계	585,798	507,594	1,093,391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2012~15년 각호.



## IV. 평가 및 전망

본고를 시작하면서 2015년 상반기 북한 대외무역에 있어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15년 상반기 북한 대외무역에 나타난 주요 흐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북중무역은 확실히 감소했다(전년 동기 대비 -12.5%). 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반기 동안 모두 원유 수입이 통계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두 기간의 변화 추세를 보면 수출(전년 동기 대비 -10.3%)과 수입(전년 동기 대비 -14.3%)이 모두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통계상 논란이 있는 원유를 제외해도 다른 품목에서 교역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지하자원 수출도 감소했다. 무연탄 수출의 경우 단가 하락에 대응하여 주요 수출 지역 및 수요처를 전환하면서 물량을 힘겹게 늘려나감으로써 겨우 작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13년과 비교한다면 매우 부진한 결과이다. 철광석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여 수출단가와 수출물량이 모두 급감함으로써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0% 이상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무산광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내 수요뿐 아니라 북한의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전체 수출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북한경제가 대중 지하자원 수출을 대폭 늘림으로써 외화를 확보하고, 그렇게 확보한 외화를 가지고 생필품, 식량, 에너지 등을 수입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지하자원 수출 감소는 북한당국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셋째,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 등 제3국과의 무역 확대,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해외 노동력 송출 확대, 경제개발구를 통한 해외투자유치 확대 등을 추진했으며, 여러 학술 및 언론 매체를 통해 이러한 채널들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리일철(2015, pp.90~92)은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여 적대세력들의 경제봉쇄책동을 짓부시고 경제강국 건설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는 것이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정책적 요구이다.”라고 강조했으며, 황한욱(2015, pp.41~42)은 “다극화가 세계경제 발전의 기본추이로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조건에 맞게 옳은 경제발전 전략과 전술을 세워나감으로써”라고 하는 등 경제교류의 다양화와 다극화를 주장하는 모습을 유독 많이 보였다. 또한 무역의 대안으로 관광산업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전영명(2015, pp.65~68)은 “관광업은 수출상품의 품종을 확대하면서도 자급회수기간을 단축하게 한다. 관광업은 일반적인 대외시장의 상품류통통으로써는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어려운 무역상품들의 판로를 쉽게 보충적으로 넓히며 자급회수기간을 단축하여 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지어준다.”고 했다. 또한 경제개발구를 강조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광고선전의 중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리일철(2015, pp.90~92)에 의하면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라선지구를 특수경제지대로 개발운영하는 과정에 얻은 경험을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보충적인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 도들에 경제개발구를 내오도록 하였으며, 그의 기본법으로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을 제정공표하였다.”고 했으며, 김경렬(2015, pp.93~96)은 “투자유치를 위한 광고선전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광고선전방법을 리용하여야 한다. 투자유치를 위한 광고선전은 신문, 잡지, TV, 방송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명시하기도 했다. 그 밖에 수출제품에 대한 브랜드의 필요성(리진아[2015]), 지식경제 산업 육성(채철남[2015]), 국제화물 중계업(김금희[2015]) 등을 강조한 것도 이 시기에 나타난 특이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북한당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에서 북중무역 또는 과거의 남북교역 위치를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찾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북중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주요 외화획보 채널인 지하자원 수출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2015년 상반기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북한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결론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은 중국 또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경제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처럼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생존은 해나갈 수 있겠으나, 이것은 바닥에서 벗어나는 기저효과(base effect)일 뿐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의 모습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14) 물론 최근 시진핑 주석의 동북 3성 방문과 김정은의 중국군 전사자 묘지 화환 등 중국과 북한 간 화해 신호가 정말로 정치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경제적 교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하반기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하반기 무역을 비롯한 각종 경제적 교류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경렬, 「다양한 투자유치수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 종합대학 학보』, 2015년 제1호, 2015, pp.93~96.
- 김금희, 「국제화물중계업과 그 특징」, 『사회과학원 학보』, 2015년 제2호, 2015, pp.30~31.
- 남진욱, 「북중무역 통계의 특이성」,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7월호, 2015, pp.63~7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난해 북한 대외무역, 전년대비 3.7% 증가한 76억달러」, 보도자료, 2015. 6. 5.
- 리일철, 「우리 나라 각 도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투자의 중요특징」, 『김일성 종합대학 학보』, 2015년 제1호, 2015, pp.90~92.
- 리진아, 「새로운 수출제품의 판로개척방법에 따르는 상표의 제정」, 『경제연구』, 2015년 제2호, 2015, pp.44~46.
- 이종규,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감소: 원인과 의미」, KDI Focus 제57호, 2015.
- 전영명, 「사회주의관광업의 본질적 특징과 역할」, 『김일성 종합대학 학보』, 2015년 제1호, 2015, pp.63~68.
- 채철남, 「경제의 지식화는 지식경제강국건설의 합법칙적 연구」, 『경제연구』, 2015년 제1호, 2015, pp.19~20.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2012~15년, 각호.
- 『Daily NK』, 「무산광산 가동중단으로 노동자 1만명 이상 감원」, 2015. 1. 19.
- 『파이낸셜 뉴스』, 「나진 하산 물류 프로젝트, 유연탄 14만t 2차 시범 운송」, 2015. 4. 15.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5. 7. 6).

### 〈관련자료〉

- 이석 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연구보고서 2013-05,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이종규, 「2014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7월호, 2014, pp.46~53.
- 이종규, 「북한의 대외무역: 2014년 평가 및 2015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1월호, 2015, pp.52~61.
- 황한석, 「다극화는 오늘 세계경제발전의 기본추이」, 『사회과학원 학보』, 2015년 제2호, pp.41~42.